

“자본 위기 전가 맞서 노조 명운 걸고 싸울 때”

금속노조, 확산 상경 등 본격 투쟁 돌입...노조, “구조조정 본격화, 한 사업장 문제 아니다”

금속노조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첫 확대 간부 상경 투쟁을 벌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자 자본이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 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노조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금속노조가 자본과 감염병이 무너뜨린 세상을 구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지금 금속노조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강력한 투쟁



을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408개 사업장 중 이미 100여개 사업장이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은 이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문제다”라며 18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본의 일방 무급 휴직 연장에 맞서 6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STX조선 노동자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산업은행을 찾아 충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장섭 노조 STX조선지회장은 확대 간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산업은행은 2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급 휴직의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고정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지난 2년은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산업은행이 자금

회수를 위한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더는 노동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금속, 울산·수원·서울에서 투쟁 전개

이장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장 투쟁사를 통해 “현대차 자본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본이 말하는 원가는 노동자 임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장근 지회장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꿈수 자회사 전환으로 자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되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8년째 고통을 당하는 금속노동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건우 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복수노조 문제가 해결되나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이건우 지회장은 “어용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자본

의 민주노조 탄압에 노동기본권이 더는 희생당하면 안 된다. 인지 노동자들은 8년 당했지만 앞으로 8년 더 버티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겠다” 라고 결연히 선언했다.

이날 포스코 원·하청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측의 일방 강제 휴업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포스코 조합원들은 포스코 자본이 철강 수요감소에 따른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연차 강제소진과 하청노동자 해고, 비용 절감 등을 강요하며 하청사와 노동자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확대 간부들은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투쟁을 벌였다. 지회는 계동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대시민 선전전과 ‘죽음의 노동을 끝내자. 19년 입단협 승리하자. 파업 상경 투쟁 결의대회’ 를 열고 “안전 시스템 제대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20년 교섭은커녕 2019년 단체교섭조차 마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해외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수원시에 있는 모베이스전자 정문 앞에서 ‘모베이스전자 MG공장 물적 분할 저지, 고용안정 쟁취, 노조 탄압 분쇄 지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노

동자 단결 투쟁에 달려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 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반드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중단없는 단결 투쟁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조선우드 대표가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를 만나 처음 한 말이 ‘고인이 평소 시키지도 않을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였다. 검찰도 경찰도 말끝마다 본인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 보면 사고 전날, 그 전날도 매일 하던 일상 업무였다” 라고 폭로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2014년에 같은 회사 옆 기계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노동청은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마무리했다. 노동청은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죽은 노동자 숫자만 세고 있다” 라고 분노에 찬 비판을 이어갔다.

정준현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 모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굴 농사를

지어도 민주당이 지으면 탕자가 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될지, 중대 재해를 줄이는 법이 될지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고 김재순 노동자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순 노동자는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당사 앞 마무리 집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생명 안전시민넷> 대표 송경용 신부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가장 비참한 권리” 라고 개탄했다. 송경용 신부는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석수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입법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으로 돌아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해 달라” 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숨방망이 처벌’ 이라고 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21대 국회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은 포기 않았다. 긴장 놓지 말아야”

금속 경기, 모베이스전자지회 탄압 분쇄 결의대회... “금속노조 중심으로 당당하게 헤쳐가자”

“금속노조 함께 투쟁, 구조 조정 박살낸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6월 10일 오후 경기 수원 모베이스전자 본사 공장에 모였다. 노조 경기지부가 ‘모베이스전자 Mg공장 물적분할 저지, 고용안정 쟁취, 노조탄압 분쇄 경기지부 2020년 투쟁승리를 위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노조 경기지부 확대 간부와 모베이스전자지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곽영우 모베이스전자 지회장은 “조합원의 단결로 사측 구조조정 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고 있다”라며 “경기지부 연대에 큰 힘 받아 투쟁을 이어 나간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베이스전자(구. 서연전자)는 자동차 스위치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한다. 수원과 천안에 공장을 두고 있다. 2019년 9월 서연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모베이스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한 달 뒤, 고용불안 위협에 옛 서연전자노조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모베이스전자지회로 조직 전환을 감행했다.

노조 모베이스전자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회 요구에 차일피일 상견례 날을 늦추었다. 2019년 12월 31일 사측이 천안공장 설비 반출을 시도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막았다. 지회는 2019년 11월 19일 노사가 맺은



고용합의서를 들이밀며 항의했다. 농성을 벌이며 계속 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사과논커녕 희망퇴직을 꺼냈다.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곽영우 지회장은 “회사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거부하니 수원공장 희망퇴직을 요구했다”라며 “결국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고 그제야 회사가 금속노조와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측은 단체교섭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신소재 마그네슘공장 물적분할을 시도했다. 곽영우 지회장은 “사측은 한 마디 얘기 없이 4월 28일 수원 Mg공장 물적 분할을 공시했다”라며 “금속노조가 끈질기게 싸운 결과, 교섭이 열렸고 6월 8일 회사가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곽영우 지회장은 “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모베이스 자본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곽 지회장은 “긴장을 놓지 말자.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

기지부 모든 조합원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금속노조에 잘 오셨다. 지금 제대로 싸워 시작을 잘한다면 모베이스지회는 그 기세와 힘으로 튼튼하게 설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모베이스

전자 고용안정 쟁취 싸움에 금속노조가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한 사업주들을 비판하며 “금속노조 중심으로 단결해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구양 지부장은 “누구도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다. 노동자 스스로 힘으로 임단협과 모베이스전자지회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라고 독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6월 11일 결의대회를 여는 김영일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회는 사측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해 5월 23일 새벽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일 지회장은 “사측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금속노조 이탈을 조장한다. 모베이스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한 번 치를 싸움이라면 조합원들과 흔들림 없이 이겨내길 바란다. 금속 모든 사업장의 문제다. 경기지부 사업장 모두 구조조정 대응 태세를 갖추자”라고 독려했다.

“65년 대우버스, 코로나 위기 틈탄 해외 이전 안돼”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금속 결의대회 열어... “백성학은 땅만 팔고 튀려는 것인가”

“영안모자가 대우버스를 인수한 후 한 번도 마음 편한 적 없었다. 버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영안모자그룹은 기술 개발보다 해외법인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65년간 버스를 만들어 온 대우버스는 2019년 전 기버스 국내 수요 583대 중 10대밖에 납품하지 못했다. 처참하다.”

금속노조가 6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해외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열고, 막무가내로 국내공장을 없애려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을 규탄했다.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은 비통합을 금치 못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무능력한 데다 파렴치한 백성학에게 노동자 생존권을 맡길 수 없다” 라고 선포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65년 동안 기술을 축적한 버스 전문 생산공장으로서 해외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 정부는 온 나라가 고통을 겪는 코로나 위기를 틈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영안모자에 절대 공적자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 라고 호소했다.

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는 울산공장을 폐쇄한다고 지난 3월 30일 선언했다. 대우버스의 모기업인 영안그룹은 베트남 공장을 주력으로 육성하겠다고며 6월 15일부터 울산공



장의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고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6월 10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는 결의대회 전 대우버스 울산공장에서 ‘공장사수 출정식’ 을 열고 박재우, 최지훈 지회장의 삭발로 투쟁 의지와 승리의 결의를 밝혔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대회 여는 말을 통해 “백성학 회장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돈이 되는 땅만 팔고 해외로 이전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비판했다.

김용화 수석은 “영안그룹은 앞에서 고통 분담을 외치지만 뒤로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18만 금속노조는 물컹하지 않다. 동지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한 뒤 “금속노동자 총단결로 대우버스 지켜내자” 라고 구호를 외쳤다.

최지훈 노조 대우버스사무지회장

은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쟁의 기간임에도 신차 생산을 위해 쟁의 행위를 잠시 미루고 신차 생산 안정화를 했다” 라며 “사측은 코로나 악재를 이용해 비수를 쏘고 있다. 노동자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해외로 나가려는 영안 자본에 종지부를 찍자” 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제조업 덕분에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음이 드러났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오는 마당에 대우버스는 멀쩡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려 한다는 꿈수가 말이 되느냐” 라면서 “악질 자본이 이윤을 위해 공장을 없애려는데 울산시는 뭐 하고 있나. 국가의 주인인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나” 라고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울산 시청에서 태화강까지 행진을 벌였다.